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의 강점은 단연 ‘명상 교육’ 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정신의 근육, 마음의 힘줄을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명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 교육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4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국대의 강점을 불교를 기반한 ‘명상 교육’ 임을 분명히 했다. 명상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자아 성찰을, 전공 · 실무교육으로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인재로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른 인성과 강인한 정신력, 실무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게 윤 총장이 추구하는 교육관이다.

윤 총장의 교육관의 바탕에는 ‘불교’ 가 있다. 실제 그는 총장 선거 공약으로 ‘불교교육학 정립’ 을 내세웠고, 선출 직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을 때에도 “불교교육학을 정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불교교육학 정립’ 은 윤 총장이 불자이자 교육자로 현장을 살아오며 느꼈던 문제점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1981년 동국대에 입학해 불교를 접하고 배웠습니다. 그 이후 동국대에서 신행활동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불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는 방법론이 부재해 발생했습니다. 매년 동국대에는 2778명의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이중 4년 뒤 불자로 졸업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당장 매년 입학하는 2700여 동국인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 불교 인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개신교는 ‘기독교 교육학’ 이라는 학문분야가 있고, 가톨릭도 ‘교리 교육학’ 을 통해 교리 교육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지적처럼 불교만 현대적인 교육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불교학에 현대적 교육학을 접목해 ‘불교교육학’ 을 정립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윤 총장은 올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조직을 만들고 불교학과 교육학의 융합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5일 기자들을 만난 윤재웅 총장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 근본은 ‘불교’
마음 힘줄 키울 명상교육 강화
불교교육학 정립 · 보급에 역점
‘상월결사 108 원력문’ 대중화
매달 11일 ‘합장데이’ 선포 계획
재학생들의 ‘불교 일상화’ 추진

“초등-중등-고등교육에 이어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위계 · 특성별 어떻게 가르칠지, 학습 수용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불교교육학’ 입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불교학, 교육학 전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할 과제죠. 종단 교육원과 포교원과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불교교육학을 정립하는 것은 최근 대두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라는 원력의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건학위원회가 신규 핵심사업으로 지정한 ‘청년불자 양성’ 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재학생들에 대한 ‘불교의 일상화’ 에 초점을 맞출 계획을 갖고 있다. 합장의 생활화를 위해 ‘합장’ 을 동국대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공포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 로 지정 운영키로 했으며, 공양기도문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내 모든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 을 게시하고 음원 제작 · 홍보, 동참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상월결사 108원력문’ 보급 및 대중화를 추진한다.

“저는 합장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동작이라고 봅니다. 불교종립 동국대 구성원이라면 합장의 일상화는 필요합니다. 불교 전법 실천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양기도문 보급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생활 속에서 상월결사 108원력문을 쉽게 접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화하고 교내 108배 정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말미, 윤 총장은 스스로를 ‘과정적 존재’ 라고 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자신은 발전의 씨앗만을 뿌려도 되며, 열매는 자신의 임기 뒤에 거둬도 상관없다”고도 했다. 그렇기에 윤 총장은 동국대가 대학평가 5위에 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발전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의 교육환경은 29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평가가 5위에 오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향후 동국대는 규모의 경제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 · 소대학들과의 입수합병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수 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선투자가 필요하죠. 이를 통해 동국대가 발전하는 대학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것, 그것이 제 총장 임기동안의 목표입니다.”

동국대 이사에 덕문·삼조 스님 선임

제349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자광, 돈관, 덕문스님 기금 전달


덕문 스님


삼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덕문 스님과 삼조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4월 26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9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덕문 스님과 우송 스님의 후임 이사를 선출했다. 동국대 승려 이사 후보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2배수로 후보를 추천받고, 중앙종회에서 이를 승인해 추천된다. 지난 4월 4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는 덕문 · 대진 스님(덕문 스님 후임)과 삼조 · 본원 스님(우송 스님 후임)이 각각 복수 추천됐다.

이날 이사회는 덕문 스님 후임으로 덕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으며, 우송 스님 후임으로는 삼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들 스님들의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선임 직후 덕문 스님은 “소임을 계속 반복해 맡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이사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신임 이사 종호 스님과 신임 감사 도림 스님을 각각 교육위원회와 의료위원회에 각각 배정키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정관 변경 △정관 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2022회계연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 △기금 용도변경 승인 △경주병원 불용자산 폐기(매각) 승인 △학과 · 대학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1000만 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이 5000만 원을, 이사 덕문 스님이 3000만 원을 각각 쾌척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3월 이후 윤재웅 총장이 취임하는 등 학교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며 “저 역시 지난 3월부터 이사장 소임을 맡게 됐다. 이사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귀를 기울일테니 아낌없는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제1회 글로벌 부디스트 서밋 참가

4월 20~21일 뉴델리서…정범 스님 참석

IBC(세계불교연맹, 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가 주최하는 국제불교정상회의(Global Buddhist Summit)가 4월 20~2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를 대표해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사진〉



뉴델리에 위치한 아쇼카 호텔에서 열린 이번 국제불교정상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키샨 레디 인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등 약 30개국에서 500여 명의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불교정상회의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불교정상회의를 개최한 인도 모디 총리는 인사말에서 쿠시나가르와 룸비니에서 진행 중인 불교성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현재의 국제적 갈등과 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 토론 세션에서는 환경위기와 지속 가능성, 나란다 불교 전통 보존, 현재 세계에서의 부처님 법의 필요성과 보존, 승가의 시대적 역할 등을 주제로 학자들과 스님들이 발표와 토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불교정상회의에는 한국 대표단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대리해 해외특별교구 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이 공식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정범 스님은 세계 각국 불교 대표들과 만나 불교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불교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각 국가 간의 불교의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2567 Buddha's Birthday

빛고을관등회

5월 20일 (토) 오후 5시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앞)

▪ 봉축탑 점등식

▪ 봉축탑 문화전당 점등식
(화엄사4사자3층석탑)
일시 : 4월 28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5.18민주광장

· 운천저수지 점등식 (성덕대왕신종)
일시 : 5월 1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운천저수지

· 수완호수공원 점등식 (정림사지5층석탑)
일시 : 5월 2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수완호수공원

· 우산근린공원 점등식 (상원사 범종)
일시 : 5월 9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우산근린공원(무등도서관 사거리)

· 광주공원 점등식 (화엄사4사자3층석탑)
일시 : 5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광주공원 앞

▪ 본행사

▪ 어울림한마당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 5.18민주광장

▪ 관등법회(부처님오신날 연합법회)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5.18민주광장

▪ 연등행진 (장엄등 행진)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7시 10분
장소 : 문화전당-충파-광주천-문화전당

▪ 대동한마당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8시
장소 : 5.18민주광장

▪ 전통등전시회

▪ 전통燈전시회
(광주천이 생명이 숨 쉬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전통한지등 40여개 전시)
일시 : 5월 11일(목) ~ 5월 28(일)
장소 : 광주공원 앞 광주천

▪ 전통등(燈)전시회 작은음악회
(광주천 전통등전시회를 기념하는 음악회)
일시 : 5월 13일(토) 오후 7시
장소 : 광주천 앞

주최·주관 광주불교연합회 후원 광주광역시